

검은머리갈매기의 보호활동-구조와 방조

1 지자체명 : 랴오닝성 판진시(Panjin)

2 발표자명 : 장 쟈젠(Zhang zhenzhen)

(랴오허유전(Liaohe Youtian)제 1 고등학교 3학년 8반)

3 활동명 : 검은머리갈매기의 보호활동-구조와 방조

4 활동기간 : 2000년~2014년

5 활동장소 : 랴오닝성 판진시 쌍타이쯔 (双台子)하구 자연보호구

6 활동을 시작한 경위

검은머리갈매기는 중국에서 2급보호조류로서 멸종위기에 있는 종으로, 판진습지는 검은머리갈매기의 중요한 번식지이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종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7 발표요지

판진시는 아시아에 있는 최대의 습지로서 판진습지의 쌍타이쯔하구는 국가급 자연보호구이다. 이곳에는 253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고 그중에는 두루미나 검은머리갈매기와 같은 국가 1,2급의 보호동물도 있다. 판진시는 검은머리갈매기의 고향으로 불리운다. 검은머리갈매기 애호가들의 노력으로 판진시에 벌써 8000마리 이상의 검은머리갈매기가 서식하고 그 수는 세계 총 서식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판진습지는 현재 검은머리갈매기의 종류·분포가 가장 집중해 있는 서식지와 번식지가 되었다.

나는 검은머리갈매기 보호협회의 일원으로서 검은머리갈매기 보호 및 생태환경 보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 14년 전부터 해마다 3월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쌀을 뿌리고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배고픔을 참고있는 새들을 돕고 있다. 나는 “봄에는 새를 쫓지 말아요! 새들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여기저기 붙이고 또 검은머리갈매기를 지키자고 하는 테마의 선전용 그림을 창작해 여러 기회를 이용해 많은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에 진학후 반에서 조류애호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또한 반 친구들이 활동에 참가하도록 움직인 결과 우리반은 새를 사랑하는 반으로 선출되었다. 2009년 9월에 처음으로 고압선에 닿아서 양다리를 다친 검은머리갈매기가 우리집으로 보내져왔다. 가족 모두 하나가 되어 상처입은 검은머리갈매기를 치료하고 돌본 후에 비행훈련을 시키고, 1년후 2010년에 겨우 푸른하늘에 방조할수 있었다. 그후 가족들의 협력을 얻어 다른 5마리의 검은머리갈매기를 구조하고 방조할 수 있었다.

오랜 환경보전활동을 통해서 사람·새·습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층 더 많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다. 습지는 인간과 조류가 공유하는 세계이고, 인간과 새는 평등한 생존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새와 사이좋게 지내야만 비로소 습지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류에게 좋은 생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어머니되는 지구를 위해!